

전통공예

와카사의 전통공예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왔습니다. 화지, 마노 세공, 기와, 칠기 등이 있습니다. 미케쓰쿠니 와카사 오바마 식문화관의 와카사 공방에서는 이런 전통공예의 제작을 견학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공예품 제작도 가능합니다.

와카사 칠기

빨강, 노랑, 초록, 금색의 독특한 색상 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와카사 칠기는 호화로운 외관으로 귀중하게 여겨져 일본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와 계란 껍데기, 말린 솔잎 등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색옷을 덧칠한 후 금박으로 장식을 하고 다시 옷을 덧칠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이 되는 디자인과 색감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연마합니다. 와카사만의 아름다운 해저에 비유되는 패턴을 가진 깊고 부드러운 느낌의 작품입니다. 와카사 칠기의 기원은 게이초 연간(1596년-1614년)에 번주 사카이 다다카쓰가 외국에서 들여온 옷칠 쟁반을 헌상받은 것에 있습니다. 이 그릇에서 영감을 얻은 장인이 개량과 연구를 거듭해 와카사 칠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예로부터 칠기는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옷칠한 그릇에 요리를 담고 옷칠한 젓가락으로 먹는 모습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세련된 매력이 있습니다. 오바마시의 옷칠 젓가락 생산량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카사 화지

화지도 와카사에서 수 세기 동안 만들어진 공예품 중 하나입니다. 와카사 화지는 닥나무 껍질로 만듭니다. 닥나무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는 물과 닥풀 뿌리에서 추출한 점액(네리)입니다. 한때 화지는 장부나 우산, 장지문 등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와카사 칠기에도 나무 이음새의 강도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는 수채화나 문구류, 기타 예술 제작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차통 표면을 감싸는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가타조메라고 하는 화려한 일본 전통문양의 화지는, 원래는 와카사 화지에 교토에서 문양을 그려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염색하는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튼튼한 와카사 화지가 사용된 것입니다.

미케쓰쿠니 와카사 오바마 식문화관에서는 이 지역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예품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2층 공방에서는 숙련된 장인의 기술을 견학하거나 가까운 기념품 가게에서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예품 제작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뜨기나 식품 샘플 제작, 와카사 칠기 젓가락 연마 등 다양한 워크숍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성품은 오바마 여행의 추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